

야간고등학교(여자상업) 학생들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文化人類學的 現場研究

- 미래관과 근로관을 중심으로 -

趙 義 淑* 張 禧 元**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대상 및 방법
4. 연구과정
5. 연구의 기여 및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화의 개념과 성격
2. 사회화의 이론
3. 청년기의 행동
4. 사회화와 학업성적
5. 학업성적에 미치는 가정환경

III. 현장 연구의 실제

1. Y여자상업고등학교와 학생들
2. 야간 여상고 학생들의 생활
3. 야간 여상고 학생들의 가치관
 - (1) 학력중심주의
 - (2) 타자 의존성
 - (3) 가치관의 획일성

IV. 교육적 제언

참고문헌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청소년기의 기간은 사회마다 다르다. 어떤 원시 전통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사춘기에 이르면 성년식(Initi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유년기에서 곧 성년기로 들어가므로 청소년기가 거의 없든지 아니면 아주 짧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형식적 학교제도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사춘기 이후의 많은 시간을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학생의 신분으로 보낸다.

따라서 유년기와 성년기 사이의 기간, 즉 청년기가 길어졌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여 부모로 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성인에 대한 역할기대도 지연된다.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실업학교나 야간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빨리 이 성년으로서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人文大學, 教育學教授

** University of Oregon, 哲學博士.

한 인간의 생활주기 중에서 학교 교육기간에 기초도야를 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학교외 여가시간이나 직업생활, 가정생활 등 넓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이 사회 변천이 급격할 때 청소년 문제, 즉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행위, 그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할 때 기성세대의 자세에 대한 검토와 지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외 생활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자신들의 사회적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의 개선과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도록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집단의 청소년들중에서 주로 야간 여상고생을 상대로 그들의 미래관과 직업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학교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조성하며 관심갖는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研究의 必要性

본 연구는 네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지닌다. 이 연구는 야간 여자상업고등학생중 극히 제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므로써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

(1)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준비하지만 소수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뿐이다. 대다수 청소년은 사회의 저변에서 직업을 찾아 사회의 일원이 된다. 따라서 사회의 근간을 형성할 근로청소년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직업전선에서 일하게 되었다. 청소년들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원이 된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준비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이 청소년 연구는 또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실업학교나 야간고등학교 현직 교사에게나 미래 교직에 임하려는 교직과정 이수자들에게 교육대상자들의 가치관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심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고 본다.

(4) 실습학생을 돕는 길을 연구하는 방법중 하나로 교직과목이수생에게 학습습관검사 실시한 결과 고교생에게 직접 실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검사를 실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3.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 대상

야간 여상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연구자들이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관에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자 장희원(1988)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미국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연구하였다. 그는 일년간 미국의 한 도시의 교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미국 청소년 학생들과 생활하며 문화인류학적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참여 관찰하고 면접하였다. 그 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전 학년의 약 30%, 졸업학년의 약 75%)이 학기중에 전일제(Full-Time) 또는 시간제(Part-Time)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번 돈이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직업을 통하여 한 성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은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장려하든지, 적어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 미국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연구하며 한국청소년들이 직업얻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공부위주, 대학진학 위주인 한국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경향에 비교적 적게 영향받는 상업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시간적인 면에서 낮에 일할 수 있는 야간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연구대상반 학생들이 소수만 현재 취업하고 있고 이들 중 면접에 응하겠다는 숫자도 적어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연구 초점을 집중시키지 않고 학업만 하고 있는 학생들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여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연구자들이 연구대상들의 학교생활에도 참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면접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구자들과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차이가 연구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여학생들만 선택하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인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문화기술적 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주로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두가지 방법외에 학생들에게 학습습관검사와 질문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교지나 교육과 정계획표 등 학교행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이 끝날 무렵, 연구대상반 학생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기 수기를 쓰게 하였다. 첫째 문제는 “나의 과거나 현재중 어느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내가 현재 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졸업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혹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이유는?”이라는 세 가지 질문중에서 각자 원하는대로 택일하게 하였다.

둘째 자기 수기는 “나의 취직관”에 대하여 쓰게 하였다.

4. 研究過程

(1) Y여상을 선정한 이유는 숭실대학 졸업생이 Y여상의 교사로서 근무하므로 교섭이 가능하였고 그 곳의 교육행정가들이 교육연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Y여상과의 최초의 교섭은 1988년 9월 연구자와 연구대상반(2학년 모반)의 담임교사, Y고등학교 교장, Y여상 교감간에 이루어졌다. 10월에 모반 학생들에게 학습습관검사(김기석 저)를 실시하여 학생들과의 최초의 접촉을 기하였다.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측대로 학습습관검사 점수와 학업성적의 상관성이 높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학습지도의 향상을 위하여 참고하도록 학급담임교사와 본인들에게 해설해주고 작성을 촉구하였다.

11월에 같은 학생들에게 가족상황과 취업관을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현재 취업을 안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24 문항을 주고 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27 문항의 질문지를 주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지들은 단답형이든지 간단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 질문지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기 보다는 본 논문의 부분 부분마다 연결하여 거론하였다.

(2) 전형적인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관찰기간은 짧았다. 우선 시간적 제한이 가장 큰 이유였고, 둘째로 이런 연구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공동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참여관찰한다는 것이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공동연구자를 장 연구자로 표시함)

장 연구자는 12월 중순부터 겨울방학할 때까지 두 주간과 2월 개학하고 봄방학때까지 한 주간을 모반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학생들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둘째 줄의 빈 자리에 한 학생과 짝을 하며 삼 주간을 보냈다. 석레부터 종레까지 쉬는 시간과 중식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하루 종일 교실에서 보냄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시간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참여관찰하였다. 수업시간에는 가능한 한 교사의 강의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학생들간의 동적관계와 대화에 대해 관찰기록을 하였다. 주위에 앉은 학생들이 장 연구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자습시간에는 그들의 대화에 끼워주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장 연구자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 반면, 몇 교사들은 장 연구자의 존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듯 하였다.

학생들이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보내기 때문에 장 연구자는 주위의 학생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고 이 학생들을 관찰할 기회가 더 많았다. 그러나 타자시간이나 예배 시간 같이 특수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주위에 앉지 않은 학생들과 걸어가거나 옆에 앉으므로 학생들과의 교제를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연구목적상 가능한 한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

고 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과만 접촉하고 친해지게 되는 상황에서 장 연구자는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다.

모든 참여관찰 내용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또는 나중에 기억하여 관찰기록지에 수록하였다.

(3) 시간적 제한성 때문에 참여관찰이 훨씬 짧고 간소하였던 반면 많은 중요한 정보를 면접을 통하여 얻었다. 질문지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 장 연구자와 만나 면접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했었다. 50명의 응답자중 25명이 처음에 면접하기를 원했으나 나중에 6명이 줄어들었다. 또 5명이 겨울방학 동안 연락이 안되든지 서로 시간이 안맞아 면접을 못했다. 방학이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시작하여 개학할 때까지 약 2개월 반동안 14명을 한 두번씩 면접하였다. 그 중에 2명은 동의를 얻어 일주일에 두번씩 약 1개월 반동안 깊이있게 심층적으로 면접하였다. 면접은 연구자의 대학연구실에서 진행되었는데 대학이라는 환경이 여상 학생들에게 위화감이나 중압감을 줄 우려도 있었으나, 주위의 방해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잇점도 있었다. 모든 면접은 학생들의 양해를 미리 구한 후 녹음테이프에 녹음되었다. 녹음한 이유는 면접한 내용이 본 연구의 자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그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려는데 있었다. 면접을 하며 그것을 받아 쓰는 것을 면접 자체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충분히 대화할 수 없으므로 녹음테이프가 훌륭한 문제해결책이 되었다. 녹음된 테이프를 5명의 대학생들의 손을 빌어 녹음된 그대로 문자화 하였다.

(4) 참여관찰, 면접, 질문지 학생들의 옛세이(자기수기), 학생기록서류 외에 연구과정에서 떠오르는 장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현장에서의 느낌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참여 관찰기록지가 객관적이고 관찰 사실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 일기는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장 연구자의 그때 그때의 심적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일기가 본 논문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으나 기본적인 자료해석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5) 여러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방법(Qualitative Method)이란 여러가지 모은 자료들을 수차례에 걸쳐 읽으면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학생들의 삶의 관심사들과 주제들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발견된 관심사들로는 친구, 급수, 가족, 이성교제들이 포함되는데 모아진 자료들이 관심사 영역별로 분류되었고 Ⅲ부에서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기술하는데 이 내용을 사용하였다.(극히 제한된 지면에……)

이 질적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주제들은 Ⅲ부의 소제목들이 되었다. 질문지의 응답들중 단답형의 문항에 대하여는 빈도수를 계산함으로써 양적으로 종합, 분석되었고 의견을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는 다른 자료들과 같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5. 研究의 寄與 및 制限點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첫째로 교직교육의 측면에서 본 논문은 상업학교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교직 과목 이수자들에게 상업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소개 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준비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교직교육에서는 교사지망생들에게 자신의 전공과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교육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 교직교육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교육현실에서 소외된 학생계층에 대한 관심을 교육학 연구에 첨가하는데 있다. 한국의 교육행정가들의 관심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진학에 과대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며 대중전달 매체들도 이 동향에 발맞추는 듯하다.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연구자는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실업학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교육의 현장연구과제로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교육학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세째로 본 연구의 기여는 연구방법의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교육학 연구의 동향이 한동안 양적 연구방법에 치우쳤던 것처럼 한국의 교육학 연구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근래에 이르러 질적 연구방법(인류학적 연구방법)이 한국에서도 교육학계에 소개됨으로써 연구방법이 신중하게 고려되며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한 예로서 그 과정에 조금씩 진보하는 긍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문화인류학적 방법인 참여관찰과 문화기술적 면접은 연구대상을 하나의 비상정적 물체로 보기보다는 주관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연구가 연구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연구대상 중심으로 바뀌고 연구대상들이 제시하는 생활상을 통하여 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그들을 이해하는데 본 연구에서 전용한 방법이 교육학 연구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본 연구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가지 점에서 기여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두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짧은 기간에 걸쳐 참여관찰하고 면접을 함으로써 오랜기간에 걸쳐 행해진 질적 연구가 도달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못미치는 제한점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느냐가 그 연구의 질을 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은 통찰력과 비교적 현실을 잘 대변하는 풍부한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부분적 묘사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둘째의 제한점은 본 연구가 한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다른 여자상업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남자상업고등학교에 그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학생 문화는 남학생 문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어 이 논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이 똑같은 질문지를 S남자야간상고 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더 많은 남학생들이(Y여자상고: 15%정도, S남학생: 50%정도) 현재 취업하고 있으며, 또 더 많은 여학생들이 남에게 고용되기를 희망한 반면, 더 많은 비율의 남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원하든지 개인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이 남·녀 학생들의 차이의 일면을 보더라도 여학생에 대한 연구가 남학생 집단에 쉽게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일반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잘 참작하므로써 그 나름대로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理論的 背景

본 현장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사회화 이론을 주로 하였으며 연구자의 계속연구의 일환임을 밝히고자 한다.

1. 社會化의 概念과 性格

교육이 인간을 사회화시키는 작용이라고 생각할 때 출생시부터 평생을 통하여 교육작용을 떠나서는 인간됨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화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부터 가족주기를 거치는 동안 단계적으로 받는 교육과 영향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의 사회변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가정교육에만 의존해서 형성될 수 있도록 위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아의식이 높은 자각성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모든 사회적 문화환경을 통해서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회이치를 내면화하는 일이며, 둘째는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그 사회집단에 적응하고 동일화하면서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다.¹⁾ 이 과정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며 사회내에서 직접적

1) George J. Mouly, *Psychology for Effective Teaching*, (N.Y. : Holt, Rinehart & Winston, 1965), p.144. (송전대학논문집 제 11 집, 1981, p.36 참조)

인 직무를 맡게 됨으로서 더욱 성숙된 사회인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기존 사회의 여러 형태의 행동양식이나 규범과 문화등에 접촉하면서 사회적 요구 및 역할 등을 순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키므로써 사회적 존재어로 전화되어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사회화라고 부른다.²⁾

2. 社會化의 理論

근자에 이르러서 사회화와 인격발달에 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학자나 정신분석학자 또 사회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인격발달 또는 형성과정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며 연구하여왔다.

인류학자들이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 공헌이 있는 한편, 정신분석학자들은 사회화가 어떻게 인류발달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풍부하고도 독특한 견제들을 제공하였다.

사회화 이론에 있어서는 근래에 와서 두 가지 논쟁이 생겼다.³⁾

첫째, 인간은 아이나 어른이나 사회화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고, 둘째, 본래적으로 인간은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이나의 물음이다. 첫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들은 아이를 사회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Maslow(1954)나 Allport(1955)는 교대로 자아실현이론을 주장하여 인간은 선천적 성향이 있으므로 성장발달하는데로 조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여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견해를 강조한다.

둘째 물음에 대하여는 Parsons(1958)와 같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자가 바로 아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 Kesson(1963)과 Marris(1963) 등 발달주의자들에 의하여 동조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화 이론에 대하여 두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괄적인 단어인 자아실현에 대하여는 아주 놀랄만큼 공통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화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또는 특정한 사회형태에 맞는 행동과 경험을 통하여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2) 松原治郎, “核家族時代,”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5). pp.78 ~ 79

3) E.E, Zigler and I.I, Child(ed),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bshing company, 1973), p.28
(승전대학교논문집 제 11 집, 1981, pp.37 ~ 38 참조)

4) Ibid, p.36

3. 青年期の 行動

인간 행동은 우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생기는 것과 인간과 인간과의 심리적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심리적 기초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을 설명한다면 하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문제 의식을 지닌 심리적 긴장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행동이라고 하겠다.

인간들의 목적지향적인 행동은 다음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욕구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행동을 동기지우는데 가장 힘있는 것이다. 둘째는, 후천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다. 후천적 욕구도 심리적 긴장에서 부터 동기지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안정감, 이익의 추구 등 주로 외적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습성이 반사적 행동일 때도 있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생길 경우도 있다.⁵⁾

청년기에는 주로 환경적 자극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자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특징으로는,

(1) 하고 싶은 일을 할만한 돈이 부족할 때, (2) 하고 싶은 행동을 부모나 선생에게 금지당했을 때, (3) 시간적인 장애나 거리상의 방해가 생길 때, (4) 동료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등, 주로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행동이 비효과적일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자주 계속되게 되면 성격발달에 있어서 욕구불만, 불안정감 또는 위압감이 생겨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기 쉽다. 특히 청년기에는 미숙한 성격에서나 부족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동기에 갈등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적응하기 어렵고 성격의 부조화를 가져오게 된다.⁶⁾

4. 社會化와 학업성적

자아개념이 불확실한 사람, 즉 환경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학교내에 있어서 학과목이나 학교에 대한 불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⁷⁾

-
- 5) F.E. Merrill, *Society and Cultur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62), p.489
(숭실대학논문집 제 2 집 1970, pp.227 ~ 229 참조)
- 6) Merrill, op. cit., p489 (숭실대학논문집 제 2 집 , 1970, pp.228)
- 7) B.R. McCandless and Trotter, R.J., *Children-Behavior and Development* (3rd ed), (N.Y. : Holt & Rinehart & Winston, 1977, pp.510 ~ 512.)
(숭전대논문집 제 11 집, 1981, pp.42 ~ 43 참조)

연구결과는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아개념의 점수가 낮으면 학교성적도 부진하게 된다고 하였다.⁸⁾

학업부진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정서적인 부적응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패감 때문에 오는 감정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성적에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깔려 있다.

학업부진의 원인을 또한 (1) 좋지 않은 가정환경, (2) 학습습관의 결함, (3) 정서적 불안감, (4) 불량교우관계 등의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⁹⁾

이상과 같이 가정과 학교생활의 영향이 학업성적에 미치게 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가치관과 직업관 그리고 습성이 사회인으로서 역할하기에 기초가 된다.

5. 학업성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Dave의 연구(1963)도 여섯가지 환경과정변인을 들었다. (1) 성취도, (2) 가정에서의 언어모델 (Model), (3) 가정에서의 학습조력, (4) 넓은 환경의 여러가지 측면을 심사하도록 하는 자극, (5) 가정내에 있어서의 지적 취미와 활동, (6) 가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습관 등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환경의 전체 지수와 전체 학업성취점사의 총점과의 상관성이 +.80이라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는 +.50 혹은 그 이하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¹⁰⁾

Ⅲ. 現場研究의 實際

1. Y여자 상업고등학교와 학생들

(1) Y여상고

Y학교는 1959년에 중·상업고등학교(주간 남자)로 서울의 한 기독교 교회재단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9년 현재 주간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고, 야간은 여자상업고등학교로 운영된다. 야간

8) B.R. McCandless and E.D. Evans, *Children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Hinsdale, Ill, Dryden Press, 1973) (송전대학논문집 제 11집, 1981, pp.42 ~ 43)

9) 방순동, *교육평가*, (서울; 법문사, 1972), p.30.

10) 이영덕,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77), pp.52 ~ 53

여상의 학생수는 1988년 현재 1학년이 6반으로 348명, 2학년이 6반으로 345명, 3학년이 5반으로 263명이며 총 956명이나 야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학교의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학년별 교과과정에 대한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과목배정에 있어서 일반 과목과 직업 과목의 비율이 설립 목적을 뒷받침해준다.

Y여상은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교육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전문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40% 이상의 2학년 과목들이 실업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학년별로 과목배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업교육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차이가 없다.

(2) Y여상 학생들

Y여상은 서울지역에서 경제수준이 중하~하중 정도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 거의 90%의 모반 학생들은 도보나 버스로 한시간 내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 이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하여 실시한 질문지에 의하면 응답자중 91%(42/46) 이상의 학생이 핵가족 배경이다. 학생전체의 평균 가족수는 6명으로 되어 있다. 응답자중 85%(41/48) 정도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약 13%(6/48) 정도가 결손가정이며 대부분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한명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약 37%(15/41)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가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만 일하는 가정과 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까지를 합쳐볼 때, 많은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의 지도 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19/47) 조금 넘는다.

모반 학생들을 보면 대개 3가지 이유 때문에 Y여상에 들어왔다. 그 첫째는 순전히 고등학교 연합고사 성적이 낮은데서 오는 경우였다. 이 경우 가정의 경제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둘째 이유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완전히 경제적인 이유로써 Y여상에 왔다. 이 경우의 학생들은 인문계에 갈 성적은 되지만 미래 대학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일찍 사회에 진출할 마음을 가지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동시에 직장에 다니며 학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에 있었다. 세째 가장 큰 이유는 첫째와 둘째 이유를 복합한 경우이다. 중학교 성적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정도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일찍 사회 진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간상고를 지원했으나 낙방하여 Y여상에 온 경우이다.

2. 야간여상고 학생들의 생활

(1) 등교하기 전

Y여상 학생들의 하루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았다. 등교를 오후 4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때까지의 시간을 다음 세 유형으로 보낸다.

첫째로, 많은 학생들이 기능급수를 따기 위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닌다. 대부분은 학교 주위의 학원에서 수강하는데 본인이 어느 기능에서 몇 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강 과목과 시간을 결정한다. 학원에서는 타자와(영자, 한글), 주산, 부기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과목당 1시간 30분씩 배정해 놓았다고 한다.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시면 오전반이 끝난다. 수강시간이 어느정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세 과목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늦게 학원에 가게 된다. 왜냐하면 학원이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집이 학교에 가깝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때까지의 시간을 쓸데없이 밖에서 보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시에 학원이 끝나면 3시 30분 등교할 때까지 2시간반 정도가 빈다. 이 시간에 소수의 학생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먹고, 이 시간을 이용하여 숙제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친교의 시간이 된다고 한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교 근처의 분식집이든 문방구에 가서 점심겸 저녁 대신 군것질을 한다. 좋아하는 음식은 대강 떡볶기, 김밥, 오뎅, 군만두, 과자, 라면 등이다. 이 때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니면 몇 친구들과 근처의 가게들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여 도서실이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친교를 갖기도 한다. 시험기간이나, 숙제가 많은 날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비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한다.

등교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유형은 학생들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기능급수를 취득하여 학원에 갈 필요가 없든지, 기능급수 취득에 관심이 없다가 학원에 갈 경제적 사정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집안일을 돕고 있다. 부모가 다 일하러 나가는 경우 아침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한다.

등교하기 전 여유있는 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시내에 쇼핑을 가든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오락활동이 그들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탈선” 행위로 연결되기 보다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친구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별히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늦잠을 자기도 하고 혼자 숙제를 하든지 급수 공부를 하든지 소설이나 시집을 읽든지, 라디오를 듣는 일로 소일을 한다고 여러 학생들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라디오 청취 - 주로 음악과 사회자의 재치담을 포함한 프로그램 - 는 매우 인기있는 활동이다. 어쩌면 습관화된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아침부터 학교 올 때까지 라디오를 계속 틀어 놓는다고 말하였고 어떤 학생들은 특별

한 프로그램을 신경써서 듣는다고 하였다. 어떤 경우든지 하루 평균 몇 시간씩을 라디오 청취에 보낸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라디오 음악이나 재담이 자기들이 하는 활동(공부든, 집안일이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제의 등교전 시간을 보내는 유형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 모반에서는 8명의 학생들이 연구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회사, 은행, 대학의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2) 학교생활

학교 정문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 학생들은 자기들의 몸단장을 점검하고 명찰과 뺨지를 부착한다. 학년말이 되고 날씨가 추울 때를 제외하고, 여러명의 생활지도부 학생들이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차림, 머리, 지각 등을 점검한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어떤 차림이 생활지도부 학생들에게 ‘걸릴 것’ 인지를 알고 있는 듯하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크게 공부하는 일, 친구들과 친교하는 일, 교사와의 관계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선 공부하는 일이 학교 교육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교사들 모두가 이 기능을 무시하고 학교를 생각하지 않는다. 실업교육과목 시간에는 교사가 중요 요점을 간단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든지, 타자를 치든지,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한다. 이 시간에서도 주로 개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끔 숙제도 주어진다. 예능/체육 과목들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장려하지만 다른 교과시간에서는 교사가 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받아 들이는 일방통행적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과목에서는 가끔 숙제가 주어지지만 규칙적이지는 않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쉬는 시간에 조용한 날은 숙제가 많은 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시간이 숙제하는데 쓰여짐을 알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숙제를 해 오지는 않지만 숙제검사를 엄하게 하고 안해 온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교사의 시간에는 평소에 숙제를 안해오던 학생들도 숙제를 해 온다고 한다.

공부 외에 친구간의 친교가 학생들의 하루생활에 중요한 활동이 된다. 대부분의 친구들과의 친교는 등교시, 석례전까지 쉬는 시간, 중식시간, 하교시에 하게 된다. 앉은 자리가 일주일에 한 분단씩 옮겨앉지만 주위에 앉은 친구들은 거의 똑같다. 비록 등하교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린다 하여도 학교시간중에는 주위의 친구들과 사귀는 경우가 많다.

친교관계는 주로 대화로 이루어진다. 대화의 내용은 공부에 대한 것부터 친구관계, 가족관계, 선생님들, 몸단장, 남자친구, 미팅, 영화나 TV 본 이야기 등 다양하다.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고는 가족이나 남자친구 이야기를 잘 안한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미

팅같은 이야기는 인기있는 소재로서 자주 거론된다고 한다.

공부와 친교시간 외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교사와의 관계형성의 일이다. 교무실로 특별히 불러가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과 담당 교사를 교과시간에만 접하게 된다. 혹시 특별활동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과 교사의 접촉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은 제한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든지 다른 급우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과담당 교사들과는 최소한의 접촉을 하며 특별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기능과목 교사들과의 관계에는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 기능교사들과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의 접촉은 그래도 많은 편이다. 학생들과의 개인상담을 통해 담당반 학생들에 대해 좀더 알고 있고 앞으로의 취직문제에도 좀더 깊게 관련될 것이므로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신경쓴다.

(3) 학교 파한 후

6 교시가 끝나고 종례가 끝나면 2명의 주변이 남아 청소하는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하교하기 시작한다. 하교시 몇 학생들은 공중전화에서 남자친구나 “오빠(나이가 많은 동경하는 이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삼삼오오 짝지어서 귀가한다. 누구와 같이 걸어가느냐 하는 것도 여학생들의 삶에서는 중요한 결정인 듯하다.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갔다든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다든지 하는 것이 학생들의 우정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4) 주 말

토요일 6시 30분쯤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일에 시간상의 이유로 못하던 활동을 하러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일요일도 많은 학생들에게는 친교활동을 하는데 친구와 카페 등에 가서 대화하는 일,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일, 디스코장 가는 일, 미팅하는 일, 쇼핑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친구와의 대화에 대한 욕구는 이 여학생들에게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명의 학생들이 부모들과는 거의 대화를 얹는 반면, 친구관계나 이성교제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한다고 하였다. 주말에 어떤 학생들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들에게 있어서 남자친구라는 개념은 가끔 만나 학교, 교사, 친구, 가족, 미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이성을 가진 친구를 의미한다. 혹시 소수의 “노는 애”들이 이 친구관계 이상을 벗

어나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의 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동성친구 관계와 거의 비슷한 경우로 본다. 이성교제가 남자들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 어떤 학생은 “인간관계를 넓혀보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다고 말하였다. 정확하게 모반에서 몇 명이 남자친구를 사귀는지 모르지만 면접 결과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어떤 학생들은 그 반에서 공부 잘 하고 앞진한 애들까지도 대부분 이성친구를 사귀다고 했고 어떤 학생들은 소수들만이 사귀다고 했다. 이성교제하는 여러 명의 여학생들은 주간 인문계나 주간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남자친구로 사귀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주간 애들은 야간 다니는 여자친구들을 더 원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대하기가 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즉 야간 애들은 성격이 활발한 편이고 인문계 여자 애들 처럼 도도한 척하지 않고, 쉽게 말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야간 여학생들이 주간 학생들을 사귀는 경우 평일에는 수업시간이 다르므로 주말에만 만날 시간이 주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성친구가 동성친구라는 개념이 확산된 경우가 많지만 역시 이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경우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맘에 드는 옷을 빌려 입는다든지, 머리 모양에 대해 친구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좀 더 대범한 경우는 간단한 화장을 하는 등 관심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주로 남자친구들을 만날 때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 어두운 카페나 음악다방 등에서 만난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불평했다. 제과점이나 분식집은 너무 밝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므로 카페나 다방같이 차 한잔 시키고 오래 앉을 수 있는 곳이 적당하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재미를 찾기 위해 디스코장에 간다고 했다. 여러 학생들이 디스코장에 한 두번 가봤다고 했는데, 그곳에 자주 가는 애들은 “노는 애”들로 평판이 나게 된다. 주로 언제 디스코장에 가느냐는 질문에 토요일이나 시험보는 기간중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 간다고 하였다.

주말은 미팅하기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미팅이 그룹미팅이나 “소개팅”으로 진행된다. 그룹미팅이란 미팅을 주선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은 숫자의 남자, 여자를 한 장소에 모아 즉석에서 짝을 지어주든지, 그룹으로 대화하든지, 야외로 놀러가든지 하는 미팅을 말한다. “소개팅”이란 주선하는 측에서 특정한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줄 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소개해 주는 미팅을 말한다. 어떤 경우이든 미팅을 주선하는 남자와 여자는 아는 사이이다.

많은 여학생들이 미팅을 한번에 끝날 재미로 보는 것 같다. 이 때 선호하는 파트너는 “부잣집 아들” 즉 돈을 잘 내는 남학생들이며 “잘 생긴” 학생들이다. 여러번의 만남으로 친구관계가 익숙해지면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만남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내기도 하지

만 첫 미팅에서는 남학생들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야간여상고 학생들의 가치관

(1) 학력중심주의

ㄱ. 열 등 감

면접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야간에 온 것에 대해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다. 1학년 때에는 창피한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등교할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디가느냐고 질문할까 두려워 먼 길로 돌아다녔다는 학생들도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주간 학생들이 하교하므로 이들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 등교하였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친구나 이웃에게 인문계 다닌다고 거짓 말하거나 Y고교(Y상고와 건물을 나누어 쓰는 주간 인문고) 다닌다고 하여 야간 상고에 다님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팅을 하든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도 처음에는 야간 상고 다님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혹 친구관계가 계속되어 이 사실이 그들의 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실을 노출함으로 친구관계가 깨어져버리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 열등감은 궁극적으로 학력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기인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사 집안 경제사정상 상업고교를 택했다 하여도 상업학교는 인문계 학교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로 간주된다. 소수의 “일류” 상업학교 외의 상업고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경제사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다. 야간 여상고 학생들의 학력의 수준은 주간 상고 학생들의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학력을 기준으로 학교 제도가 조직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인문계나, 상업계나, 주간이나, 야간이나 하는 구별은 외부인에게 이 학교 학생들의 지적 능력(성적으로 평가되는)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상으로 이들의 전인격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시사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함이 한 인간의 전체 능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숙진은 야간 학생들의 “머리가 비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머리는 더 비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더 안하기 때문이다. 숙진은 기능급수를 따서 졸업 후 관계되는 분야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보다 전문대학 가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급수과목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며 자연히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 자기가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경험이나 다른 삶의 영역에서 얻은 지식이 자기의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보다 우선 성적이 낮으므로 자기 지능 따라서 다른 인간적 질도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야간 애들은 주간 애들과 하는 공부나 상식수준을 말하는 것이 틀리므로 이들보다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주간 애들은 너희들이 아는 부기, 주산, 타자를 모르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모반 학생들은 “개네들도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는 개네가 배우는 수학, 영어 등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결국 이런 과목들이 한 학생의 지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진향이는 자기 언니중 대학간(“배운”) 언니와 대학 안간(“안 배운”) 언니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자는 “해 주는 말도 많고…… 좋은 책을 권하기도” 하는데 후자는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다”고 하였다. 진향의 말속에서도 인문계에 가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가정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가정들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야간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공부를 못하고, 사고가 단순하고, 머리가 비어있고, 놀기 좋아하고, 생각이 없고, 말을 내뱉고, 예의가 없고, 거친말(쌍스러운 말)들을 쉽게 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학생들이 야간에 온 이후로 이런 부정적인 상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웃이나 중학교 동창들의 눈을 의식하여 야간상고 온 것을 무척 “창피”하게 여기지만 학년이 올라가며 이 창피한 느낌을 덜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인문계 간 학생들이 지나치게 공부에 얽매이고 그렇다고 다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들을 부러워 하기 보다, 상업계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일찍 취직함으로써, 사회에 일찍 진출하게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들은 학교에 충실하게 되고 기능급수를 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며, 그 곳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 가졌던 수치감은 어느 정도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획득하지 못한 꿈(대학진학)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좌절감을 느낄때도 많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에는 대학진학하겠다고 말하는 학생수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점점 더 인문계 공부와 비교할 때 차이가 생김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대학준비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학생들에게 대학은 꿈과 이상의 세계이며 희망의 별천지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으로 야간 상고의 생활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기도 한다. 이런 양분론적 사고방식속에서 야간 여상에서의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나 교사나 동급생들을 부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낮은 자아 존중심 (Self-Esteem)은 학력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함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주위에서의 압력으로부터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ㄴ. 공부우선주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현재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한다. 공부한다는 개념은 기능급수를 따기 위해 준비하는 것, 학과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공부하는 것, 숙제하는 것, 취직시험 과목(특히 영어, 상식)을 공부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려는 의도는 배우는 것 자체보다 성적과 급수라는 결과를 얻는 것에 있는 듯하다. 즉, 성적과 급수가 많은 학생들의 현재에 최대 관심사가 된다.

학생들은 급수와 성적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는 단순한 공식은 타자(영어, 한글), 주산, 부기에서 각각 2급씩 있고 성적이 상위권에 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대기업체 등에 취직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사나 학생들이 이 공식을 상업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강조한다. 기능급수 담당교사들이나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각 과목당 3급 정도는 따야지 웬만한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지도하고 2급 이상 따기를 권장한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우선 기능급수를 따서 금융계통, 대기업, 공무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지 않은 학생들이 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할만한 급수를 취득하였다. 모반 학생들 중 1988년 12월 현재 상공부 기능급수를 딴 상황은 다음 표 1 과 같다.

도표가 보여주는 것같이 10% 미만의 학생들이 각각 주산, 부기, 영타에서 2급 이상을 획득했고, 15% 미만의 학생들만이 한타에서 2급을 보유하고 있다. 3급까지 다 합쳐볼때 주산은 20% 미만, 부기와 영타는 25% 미만, 한타는 40% 미만의 학생들이 급수를 가지고 있다. 60명의 학생중에 모든 과목에서 2급을 획득한 학생들은 2명뿐이다. 만족할 만한 급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 중에는 그동안 높은 급수를 향하여 학원에 다니며 수강하고

< 표 1 >

모반 급수 상황

총 학급인원 : 60명

	주 산 (%)	부 기 (%)	영어타자 (%)	한글타자 (%)	총 (%)
1 급	1 (1.7)				1 (1.7)
2 급	3 (5.0)	5 (8.3)	3 (5.0)	8 (13.3)	19 (31.6)
3 급	7 (11.7)	9 (15.0)	9 (15.0)	15 (25.0)	40 (66.7)
총	11 (18.4)	14 (23.3)	12 (20.0)	23 (38.3)	60 (100.0)

시험을 여러번 보았으나 실패한 경우가 많다. 2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급수취득을 위하여 학원수강이나 학교보충수업을 할 것을 밝혔다.

만족할만한 급수를 땀든지 그 목표를 향해 아직도 정진하든지 학생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과 돈을 투자한다. 혼자서 급수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거의 모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초부터 2학년 말까지 적어도 한두달은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의 교육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3급부터 시작하여 시험보게 되므로 네 과목(주산, 부기, 영타, 한타) 모두에서 2급을 취득하려면 8번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1학년 초에는 세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문계 학생들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학과 공부에 들인다.

급수따기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들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한다. 1987년 초부터 2년 사이에 한 과목 학원등록금이 만원에서 만삼천원→만오천원→만팔천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1988년 겨울방학의 경우, 한 학생이 부기 2급, 타자 2급, 주산 2급을 준비하느라 학원을 다닌다면, 한 달 등록금은 18,000원(부기), 15,000원(타자), 15,000원(주산)으로 총합 48,000원에 해당된다. 방학 두달을 모두 다닌다면 92,000원으로 반학기 등록금에 버금갈만하다.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학원비를 부담하는데, 가계에 무리가 되더라도 많은 부모들은 급수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한다.

2학년 말까지 기능급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중 많은 경우가 급수 따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여 급수의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능급수에는 별로 흥미가 없든지, 능력이 없다고 일찍 판단하여 신경을 안쓴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2학년 말쯤되면 급수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 이 과목들이 상업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보충을 해야만 그런대로 좋은 내신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진학을 생각하든 취업을 할 계획이든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능급수에 신경쓰지 않는 경우라도 “공부”라는 단어를 멀리 할 수 없다.

많은 학생들중 공부를 우선으로 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야간 여상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었다. 그러나 모반의 경우 13.3%(8/60)의 학생들만이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학생수는 각 반 담임교사의 아르바이트 권장도나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1988년 11월 현재 1학년은 평균 14.8%, 2학년은 16.6%, 3학년은 15.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급수 따기를 권장하는 경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얻는다고 한다. 1988년 11월에 나온 통계가 시사하는 직업관에 대한 질문지에서 41.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찬성했지만, 취업 안한 가장 큰 이유는 공부(자격증 취득, 성적올림, 대학진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많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학기중 취업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주로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은 자신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공부”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위해 다른 삶의 기회들(취업이나 다른 과외활동)을 포기하거나 그 장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듯 하였다. 상업고에서의 공부우선주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그 공부의 내용면에서 다를지 모르나 공부를 강조하거나 신봉하는 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2) 타자 의존성

ㄱ. 부모에의 의존성

많은 심리학자들이 청소년기에는 독립성을 갈구한다고 하였고, 연구자(1988)도 미국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가치중에서 독립지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Y여상 학생들의 가치속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존한다. 학교 등록금에서부터 용돈, 옷 사는 돈 등은 물론 매일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전액을 부모님이 부담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나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은 당연시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은 보호자와 피보호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짓는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는 대신, 피보호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사 피보호자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스스로 돈을 번다 하여도 피보호자가 보호자로 부터 독립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

현아는 모 대학에서 사환으로 일하여 한 달에 십삼만원 정도 번다. 돈을 몽땅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가 은행에 저축하고 부모 돈에 보태어 학비를 내든지 하여 돈관리를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한다. 따라서 현아는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진숙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무직인 아버지를 봉양한다. 이 경우에도 진숙은 자기가 번 돈을 직접 계획관리하기 보다 보호자인 이모에게 드리며 이모가 이 돈으로 부녀에게 필요한 지출과 진숙의 학비를 충당한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가치를 보호자의 것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많은 학생들이 여분의 용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안하고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반대하므로 이성교제를 원하면서도 시도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정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모로서의 잠정적 힘과 권위가 가출하였던 학생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경우도 있었다한다.

ㄴ. 친구에의 의존

친구는 청년들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낸다. 많은 부모가 직업상 아침부터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Y여성 학생들이 가족들과 얼굴 맞대는 시간이 짧고 많은 시간을 혼자있게 된다. 이 시간을 채우는 방법중 하나가 같은 사정에 있는 학교친구들과 교제하는 일이다.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혹은 같이 활동을 하든지, 많은 시간을 친구와 보내게 된다. 친구들이 학원가는 일이나, 옷 사러가는 일이나, 등교할 때, 심지어는 심심푸는 일에 필수한 존재이므로 우정을 유지하는 일에 학생들은 신경을 쓴다.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가출했던 아정의 문제는 친한 친구가 없었던 것이라 하였다. 친한 친구와 싸워서 같이 다니지 않게 되는 것도 학교 다니기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 친한 친구가 가출하든지 하면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다. 왜냐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통하여 자기상(Self-Image)을 설정하고 강화해 나가기 때문이다. 급우들에게 “노는 애”로 지적된 한 학생이 장 연구자에게 자기는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운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것 하는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친구 사이에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노는 애”와 같이 다니는 학생들은 같은 종류로 쉽게 낙인 찍히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은 옷치장과 관련된 잡지,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한다. 옷 사러 나갈때는 혼자 나가는 경우가 드물다. 여러 학생들이 자기가 고른 옷과 같이 간 친한 친구가 고른 옷이 다르면 친구가 고른 옷을 산다고 하였다. 또 미팅이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에도 끊임없이 친구의 자문을 얻는 것도 그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친구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라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숙제나 옷이나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이유가 그 전에 친구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숙제나 시험기간에 “컨닝”을 하는 경우에도 서로 한 과목씩 맡아서 준비하고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관계를 깨뜨릴때 친구관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탄에 이르기까지 한다. 영희와 수나는 반년이상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시험때만 되면 영희가 수나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나도 영희의 것을 보고 시험치른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영희의 요구는 항상 수나의 요구 이상을 넘어서었다. 숙제를 빌리는 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수나가 이러한 기울어진 관계에 대해 싫증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영희와 멀어지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상호의존적 친구관계에서 받는 쪽도 자기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재는 항상 빌린다”는 평판을 받는 경우는 급우들이 기피하기 쉽다. 이 급우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노력은 친구에서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가능한 한 외톨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무에게든 친구로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을 무척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㉔. 남성에의 의존

여러 학생들이 결혼 후 직장에 계속 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직장은 결혼까지만 계속될 삶의 수단이지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라고 보지 않는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가지고 주부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미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바람직한 여성의 미래는 남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 고친다”는 말을 쉽게 한다.

이들에게 이상적인 남편상은 “경제력이 있고” “박력이 있는” 남성들을 말한다. “경제력이 있다”는 말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제적 요소에 가치를 두는 일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도 나타난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조건중에는 돈 잘 쓰는 것, 부잣집 아들, 옷 잘 입는 것 등이 속하는데 이성교제로 사귀는 남학생들이 미래의 배우자가 될거라고 상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상적인 남성의 조건으로 경제성을 드는 경향은 남편감이나 남자친구간에 모두 해당이 된다. 이 남성들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여학생들은 그들의 미래의 행복과 운명을 상상해 본다. 소수의 학생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를 원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미래 직업이 자기 실현이나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지 가족의 경제적 풍요함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아정은 “박력이 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 “싸움할 때도 잘 싸우는 사람”, “말이 너무 없지 않은 사람”, “자기 주장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남성의 신체적 언어적 힘을 박력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형화된 타입(type)의 남성상은 온화하고, 얌전하고, 말이 없고, 예쁘고, 나약하여 보호본능을 자아내게 하는 이상적인 여성상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의 남성, 여성관계속에서 여학생들은 남성의 지도성과 경제적, 신체적, 언어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존함을 그들 미래에 자연적이며 행복하게 되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남성의존 사상은 가정에서 강조되는 남아선호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여러 학생들이 자기네 부모들이 오빠나 남자동생을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선숙이나 영란과 같이 집안에서 남아선호주의에 희생자가 된 학생들은 불공평한 대우에 불평을 한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가치를 수용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 영란의 경우가 그 뚜렷한 예이다. 많은 여학생들의 결혼관과 남성에 의존하는 생각

들이 근본적으로 남자는 선대되어야 할 우월한 존재이고 따라서 그들의 미래도 이들에게 종속되는 것이라는 사상에 그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존사상이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지, 독립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여 자기실현해 나갈 생각을 하기 보다 타자에게 의존하여 그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를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3) 가치관의 획일성

ㄱ. 명목주의

학생들은 겉으로 들어난 특성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명목주의적 사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지적 능력 전체를 평가하고, 그 지적 능력이 곧 인간의 성격(부지런함 혹은 게으름)과 다른 능력까지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고 소위 모범생이며 상업계, 특히 상업야간 학생들은 게으르고 “노는 애”들이라고 표면적인 평가를 한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키가 작지만 뒤에 앉은 성희는 키가 크고 작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키 큰 애들”(주로 뒷자리에 앉은 애들)은 마음이 넓고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농담을 받을 줄 안다고 하였다. 얘기를 잘하고 놀러 다니기도 좋아하고 공부시간에 떠들기도 잘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성희는 일반적으로 키 큰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작은 애들”(주로 앞자리에 앉은 애들)은 성격이 썩하여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이 틀어진다고 하였다. 말을 잘 안하고 공부시간에 조용히 하는 편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높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별로 노는 일에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재미없는 애들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모반 학생들이 성희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키가 큰 학생들 중 자기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뒤의 학생이 더 활발하고 앞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조용하다는 평가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듯 하였다.

큰 키와 좋은 용모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명목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특히 키가 작고 스스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특성이 앞으로 직장을 얻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여기서 큰 키라고 함은 160cm가 넘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용모라 함은 아주 주관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늘씬하고 예쁜 얼굴로 해석된다. 한 취업담당 교사에 의하면 어떤 직장에서는 이 키와 용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서 학생 추천을

해 주도록 학교에 요구한다고 한다. 그 교사의 입장에서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은 남에게 혐오감을 안 줄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학생추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조건(급수, 성적)이 다 구비되어도 외모가 부족하여 취업추천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조건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명목주의적 가치는 급우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나타난다. 많은 학생들이 급우들을 크게 “공부 잘 하는 애”와 “노는 애” 두 종류로 나눈다.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로 모범생 타입으로 옷을 평범하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입는 애들을 말한다. 반면에 “노는 애”들이란 옷을 “야하게” 입거나 “학생답지 않게 입거나” 남자를 사귀는 급우들을 말한다. 이 외형적인 평가가 학생 개인들의 실제적 질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옷차림으로 급우들을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학생은 선영을 “노는 애”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그녀의 눈에 띄는 옷차림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 운 명 론

모반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야간 여상에 들어왔으므로 설사 대학을 선망한다 해도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설사 대학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인문계 애들도 대학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가느냐”고 반문하거나 “재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대꾸하기 일쑤이다.

이런 진술들의 저변에는 야간에 들어왔으므로 대학은 당연히 그림의 떡이고 야간 여상학생으로서 주어진 운명적 미래에서 박차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주제를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어떤 학생들은 “주제넘는”다는 생각에 대학진학에 대한 갈망을 급우들에게 얘기 안하기도 한다. 대학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능력있는 남편을 구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곳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선망하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운명인 양 받아들이는 태도가 역력하다.

학생들은 그들의 미래를 회사, 은행의 사원 등으로 상상한다. 이 위치는 곧 대학출신자들 고등학교 출신 남성들 밑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회사 구조속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서 중견사원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학력차이, 여자로서의 실존적 사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IV. 교육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Y여성 학생들은 야간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이 열등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목가치(계열, 학교, 용모 등과 같이 표면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 열등감은 자기비하로 나타날 뿐 아니라, 피해의식 속에서 타자(학교, 교사, 인문계 학생들)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현실에 불만감을 느끼는 성격으로 발전하기 쉽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지적 능력평가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주와 기능을 살려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것에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내적 가치(인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상적, 표면적 조건들만 가지고 타자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제안은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하여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체가 실업교육을 위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학생들중에는 기능 교육에 관심이 없고 적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능급수를 따도록 강요하여 정신적 압박감과 경제적 손실을(끊임없는 학원 수강으로) 안겨주기 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장래희망(예를 들면, 유치원 보모, 디자이너, 연예인, 전화교환수 등)에 관한 정보자 안내를 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격려를 아끼지 않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Chang, Heewon (장 희 원), The Role of School In Various Cross—Cultural Contexts: A Discussion of Six Modeles, Unpublished Master's Paper, Division of Educational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Oregon, Eugene, 1982.
- Chang Heewon, American High School Adolescent Life and Ethos: An Ethnography, Unpublished Paper of Doctor of Philosophy, Division of Teacher Education and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Oregon, Eugene, 1988.
- Cusick, Philip A, Inside High School: The Students' Worl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 Maully, George J. Psychology of Effective Teach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5
- McCandless, B.R. and E.D. Evans, Children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Hinsdale, Iu, Dryden Press, 1973.
- McCandless, B.R. and R.J. Trotter, Children-Behavior and Development.
- Merrill, F.E. Society and Cultur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62.
- Wolcott, Harry, Life's Not Working: Cultural Alternatives to Career Alternatives, Schooling in Social Context: Qualitatives Studies, Noblit, George W., and William T. Pink, eds. Norwood, NJ: Ablex, 1987.
- Willis, Paul,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o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松原治郎, 核家族時代,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5.
- 方 順 同, 教育評價, 서울: 法文社, 1972.
- 李榮德, 教育的 過程, 서울: 배영사, 1977.

ABSTRACT

An Ethnographical Action Research on Adolescent Life and Ethos of the Evening High School Students

Cho, Eui-Sook
Chang, Hee-Won

1. The purpose of this action research is to find out the values of the students of an evening girls' high school: how their value systems and professional senses are formulated.
2. In view of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adolescent laborers in Korean society, it is greatly needed to find out their attitudes and readiness for occupation.
3.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Y Evening Girls' High School was selected as an sample institu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the teacher trainees of Soongsil University have been sent to the institution for many years on friendly terms. The second is that the particular interests of the researchers are concerned, especially the coresearcher, Heewon Chang has completed her Ph.D. in Ethnography at the University of Oregon, Oregon, U.S.A. 1989. In her work on the dissertation: "American High School Adolescent Life and Ethos: an Ethography," Chang eagerly wanted to do a similar research on the Korean students in Korea, and to compare Korean students with American students.
4. Various data are collected for this research: primarily on the basis of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 Interviews, and secondarily, on the basis of a Learning-Habits Test, Questionnaire Form, Curriculum and other administrative references. Two different methods of analysis-qualitative method for the primary data and quantitative for the secondary data—have been used.
5.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research is socialization: (1) a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ization, (2) theories of socialization, (3) four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behavior, and (4) the important effect each student's life both at home and at school has on his/her becoming a mature person in the society.
6. The main body of this research is the description of the adolescent life and etho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al interview, the findings of the primary sources of their behaviors show their characteristics.

Finding I : Academic achievement oriented way of thinking: Because of generally low standards of their academic records in middle school, they had no choice but to attend evening school. It has given them an inferiority complex. Therefore, eager to get a job upon graduation, they have to make desperate efforts to obtain good grades in high school.

Finding II : Other-directed and dependent way of thinking: They are heavi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mother or other related person) economically, and are dependent on friends for help to share their needs, and also have the illusory hope of depending upon a spouse for their future marital life.

Finding III : The way of life is uniformly becoming as a nominalist and a fatalist.

Suggestions:

- 1) As they put great emphasis o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evening school students are becoming more acutely sensitive in their inferiority complex and in the trends of materialism. Therefore, various sustaining efforts should be provided on the part of the school and parents for the students' building up preferable attitudes.
- 2) A bright vision of the future has to be given to the students by developing their potentialities in all aspects of school activities.